

월요광장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도시계획의 세계에서 한 이름이 신화처럼 회자된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정규 교육을 받은 도시 계획가도, 정부 관료도 아니었던 그녀는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한 권으로 세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뉴욕의 재개발 계획에 맞서 거리의 삶과 골목의 생태를 옹호했고 도시는 ‘사람이 사는 유기체’라는 관점을 확립했다. 그녀의 사상은 이후 수십 년간 도시정책과 커뮤니티 디자인, 도시재생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몇 해 전 전 세계 도시계획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 도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힌 사람도 제이콥스였다. 그녀의 저서 ‘자연에서 배우는 경제(The Nature of Economies)’는 도시를 넘어 경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하는 놀라운 확장을 보여준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경제든 도시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다양성, 순환, 적응, 공생이 없다면 결국 붕괴한다. 광주는 지난 20년간 도시의 외연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주택 공급률은 높아졌고 하늘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제이콥스의 말대로 이것은 ‘발전(Development)’이 아니라 단순한 ‘확장(Expansion)’에 불과하다. 발전이란 새로운 일을 낳고 다른 요소를 연결하며 스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아직 잠이 덜 깬 이른 아침, 바깥의 소란에 벌떡 몸을 일으켰다. 공포에 질린 개의 비명과 성난 남자의 고함이 뒤엉켜 창밖을 뒤흔들고 있었다. 어찌면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남은 잠이 순식간에 달아나고 아침의 고요도 잠시간에 깨져 버렸다. 안온하던 새벽은 한순간에 불안과 긴장으로 물들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정말로 ‘개 패듯이’ 개를 때려잡는 소리인지, 아니면 격렬한 부부싸움의 와중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센 감정의 파고만은 분명하게 전해졌다. 개의 비명은 남자의 날 선 목청에 휘말려 더욱 애처롭게 들렸다.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 아니라면 결코 터져 나올 수 없는 절박한 울음이었다. 남자의 고성 역시 문법도 수사도 없는 날것 그대로의 분노였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저 난동을 피우는가. 첫새벽의 평온을 난데없이 흔들어버리는 자는 누구인가. 다급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남자도 개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일시적인 소강상태인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 고개를 내밀어 이리저리 살펴봐도 좀 전의 그 긴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쪽 어

기고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지난 20일, 광주 최초의 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착공은 단순한 건축 행위의 시작을 넘어 광주의 도시 구조와 미래 성장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더현대광주’가 착공하기까지 광주시는 신속·공정·투명이라는 3대 행정 기조 아래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상 19개월 소요되는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11개월 만에 마무리하여 8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간 투자와 공공 행정이 조화롭게 맞물리는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광주는 제조업 중심 도시로서 경쟁력을 축적해 왔지만 인구 정체·도심 공동화·상권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동시에 마주해 왔다. 이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관광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현대광주’의 착공은 이러한 방향성을 현실화하는 첫 신호탄이다.

다양성이 사라진 도시의 끝

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고층 아파트는 서로 닮은 형태로만 솟아오르고 도시의 창의적 분화는 멈췄다. 도시는 커졌지만 다양성은 줄었고 새로운 가능성은 사라졌다. 제이콥스는 “살아 있는 경제는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의 아파트 단지는 지역 내부의 순환을 끊는다. 건설 자본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생활 소비는 대형 유통망으로 빠져나가며 에너지와 식품은 외부에 의존한다. 지역 안에서 생산된 것이 다시 지역의 삶을 지탱하는 ‘자기공급’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한때 골목과 시장이 이 도시의 순환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사람과 돈과 정이 도시 안에서 돌았다. 지금의 아파트 단지는 그 순환을 멈춘 ‘폐쇄된 생태계’다. 도시의 회복력은 다양성에서 온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얹혀 살아갈 때 도시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의 신도시는 ‘다양성의 죽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주민, 유사한 직업, 동일한 생활 패턴이 벽 안에 모여 산다. 거리는 깔끔해졌지만 우연한 만남과 예측할 수 없는 대화는 사라졌다. 제이콥스가 말했듯 다양성을 잃은 생태계는 언제나 붕괴한다. 광주의 하늘이 높아질수록 도시의 내부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생명체처럼 작동한다면 그 생명은 경쟁과 공생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광주의 주거정책은 ‘경쟁’만을 강조해왔다. 분양가 경쟁, 브랜드 경쟁, 고급화 경쟁. 진정한 적합성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능력인데 지금의 아파트는 주변 생태를 고립시키고 지역의 공생을 약화시킨다. 살아남은 건물만 남고 그 안의 관계와 공동체는 사라졌다. ‘살아남는 도

하마터면

디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성실했으나 건물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뒤에 흘린 건가? 고개를 가웃하며 이리저리 살피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호리호리 마른 체구였다. 그의 품에는 아기처럼 작은 흰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두 팔을 모아 꼭 감싸 안은 모양이었지만 웬지 어울리지는 않아 보였다. 하지만 형세로 보나 뭐로 보나 문제의 그 인물임은 분명하지 않았다. 저 마른 몸에서 어떻게 그런 과성이 쏟아질 수 있는지 의아스러기는 했지만. 품 안의 개는 잠잠했다. 안정을 찾아가는 중인 듯 아무 소리가 없었다. 남자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아 보였다. 개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고 있었으나 손끝에는 분노의 잔영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듯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무슨 일인지 대신 물어주는 것 같아 나도 바짝 귀를 기울였다. “아니, 개를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거칠었다. 외장질을 치듯이 불통한 답변이었으나 소동의 전말은 훤히 꿰어졌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과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걸음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별안간 목줄이 풀린 개 한 마리가 남자의 개를 덮쳐온 것. 그 순간 숨이 넘어갈 듯 어쩔만 상황이 벌어졌다. 개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고, 앞뒤 찰 것도 없이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개를 낚아챘다. 쓸 수 있는 무기라고는 오직 목정밖에 없는 듯이. 남자의 말은 목직한 일갈처럼 들렸다. 개와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여는 신호탄 ‘더현대광주’

‘더현대광주’는 1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도심 한복판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 드메롱이 설계를 맡아 개방형 구조로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구현했고 광주의 자연을 실내에 담아낸 대형 인도어 가든(실내 정원), 최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중심의 구성 등 기존 쇼핑몰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지향한다. 복합쇼핑몰이 개장되면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은 외지인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광주연구원의 연구 결과(2023년)에 따르면 외부 유입 방문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까지 유발 약 1조 7100억원 및 생산 유발 약 3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타 시도의 사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입증됐다. 복합문화시설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상생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상인·소상공인 연합회와 2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시, 기업, 상인·소상공인,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보다 ‘함께 살아남는 도시’가 필요한 이유다. 도시계획은 정밀해졌고 그만큼 삶은 예측 가능해졌다. 높아터는 높아터로만 공원은 공원으로만 기능한다. 사람들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걷고 정해진 방식으로만 만난다. 제이콥스는 “예측 가능한 경제는 이미 죽은 경제”라고 했다. 불확실성과 즉흥성, 실험과 실패의 여지가 사라진 도시는 살아 있지 않다. 광주의 고층 아파트는 완벽하게 설계되었지만 그 안에는 자발적인 변화의 틈이 없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은 결국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곳이다. 도시는 원래 생명체였다. 살아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속에서 진화하고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광주의 고층 아파트는 인간의 편의를 극대화한 건축물이지만 생명의 질서에는 맞지 않는다.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건물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다.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실험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도시, 그곳에서만 진짜 발전이 시작된다. 지금 광주의 아파트는 완벽하다. 하지만 완벽한 도시는 살아 있지 않다. 도시의 복잡성은 혼란이 아니다. 제이콥스는 도시를 ‘조직된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이라 불렀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공간,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때 도시는 다시 살아난다. 골목 한가운데 카페가 생기고 공터에서 장터가 열리며 미조성된 공원에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오래된 건물의 1층이 예술가의 작업실이 되는 순간, 도시는 다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든다. 광주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공간들이다. 계획되지 않은 가능성, 그것이 도시를 다시 살아 있게 만드

사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건 바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리!” 맞는 말이었다. 흔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같은 말은 얼마나 안이한 착각인가. 이 새벽에 벌어진 일이 곧 그 방식의 결과 아닌가. 구경꾼인 나조차 훗ति 경각심을 갖게 하는 따끔한 훈시였다. 남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개를 추슬렀다.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위험의 잔상을 떨쳐내려는 듯, 개의 머리를 거듭 쓰다듬었다.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손길이었다. 깊은 안도와 헤아릴 수 없는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거의 악다구니에 가까웠던 그 고성과는 확연히 다른, 자극한 부드러운 음이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인 듯 나도 소파에 몸을 부렸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저 작은 흰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누군가의 보호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생명체들. 동시에 우리는 모두 그 남자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바치는 존재들. 삶이란 그런 것일까. ‘하마터면’이라는 순간의 경계에서 서로에게 지닌 무게와 위험,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일. 예기치 않은 폭발, 다시 찾아온 평온, 그리고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 하마터면 잃을 뻔한 목숨을 안고 조심스레 걸어가던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멀리서도 그 표정과 눈빛이 훤히 보이는 듯했다.

운영해 대규모 시설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상생기금 조성,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입점,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 연계 구매포인트의 지역 화폐 전환,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우수제품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 공간 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더현대광주’가 들어서는 주변은 도심과 인접해 있음에도 오랫동안 개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이번 복합쇼핑몰 건립을 계기로 교통체계 개선, 보행 환경 정비, 공공 공간 확충, 도심 관광 동선 확장 등 도시 구조 전반이 개선된다면 광주는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 들고 머무는 도시’, ‘팔뚝 도시’로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이다. 광주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문앞에 서 있다. ‘더현대광주’의 착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과 지역 상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엄중한 소명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행정의 역할은 단순한 허가나 지원을 넘어 도시의 미래 흐름을 조정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변화를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늘 도전 속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온 도시다. 이번 ‘더현대광주’ 착공을 계기로 도심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흐르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社說

공사 난항 지하철 2호선 늦더라도 안전하게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생활 불편은 단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이다. 개통이 예정보다 수 차례 연기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상권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개통 지연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된 탓이 크지만 예상치 못한 암반 발견 등으로 인한 난공사와 공사비 증액 등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당초 2012년 착공해 2023년 전 구간 개통이 목표였지만 두 차례 미뤄져 2019년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로도 몇 차례 연기되면서 2호선 1구간만 하더라도 6년째 노면공사로 인한 불편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 강기정 시장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말까지 1구간 노면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려 놓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막판 공사를 몰아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다. 1구간 노면공사는 연말까지 끝내더라도 개통은 또 미뤄져 2027년 말에나 가능하게 됐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2구간의 핵심인 수완지구 공구에서 시공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시공사가 현재 설계와 공법으로 안전한 시공이 불가능하다면서 광주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인데 노선이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사비 증가는 물론 개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노선 변경과 터널, 비개착 등 대안 공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 시장 때 시작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으로 현 시장이 욕 먹는 형국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수습은 해야 한다. 1구간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충분히 지켜봤을 것이다.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수완지구는 2구간의 핵심 공구로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1구간 공사 지연을 교훈 삼아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개통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정공법이 최선이다.

농촌 일손 외국인노동자 단속보다 양성화를

요즘 농촌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 없다. 예전처럼 벼 재배 중심일 때는 벼 수확이 끝난 이맘 때는 농한기로 일손이 필요 없지만 발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요즘에는 수확기를 맞은 배추와 무는 물론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시기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문제는 농촌 인력의 대다수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나서자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곳곳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에만 열중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몇 개월 정도만 일하다 출국하기 때문에 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려돼 된 농촌에서 농민들이 기릴 곳

은 오래 국내에서 일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뿐이다. 이개호·서삼석·문금주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사라진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단속해야겠지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힘든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이 불법 근로자를 양성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시적이라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에 특화된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無等鼓

독립운동가이자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조봉암(1899~1959) 선생은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을 위협했던 정적이었다. 1956년 5월 치러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500여만표를 얻은 이승만에 맞서 216만표를 얻은 정도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전주·정읍·목포·완도 지역을 비롯해 전국 제3당의 성정에 위력을

양명산은 2심 재판에서 '특무대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들이 써준 시나리오에 따라랐을 뿐'이라고 1심 진술을 전부 번복했다. 핵심 증인이자 공범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봉암 변호인단은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양명산에 대한 사형이 1959년 7월 29일 집행돼버린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 날 조봉암의 재심을 기각하고 31일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 사상 치욕으로 남아있는 '사법살인'이다.

대법원은 2011년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조봉암을 소환한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조봉암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죽산의 길을 잇겠다"고 선언했다. 조봉암 선생 묘역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배한 것은 조 대표가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봉암의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궁금하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